

아파트 현관문 '낙서 피담'... 주민들 '화들짝'

광주시 북구 J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모(33)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집안 일을 하던 중 초인종 누르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했다. 집에 홀로 있었던 데다, 전에 도둑 맞은 기억이 떠올라 무시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현관문을 열어 주변을 살피던 중 화들짝 놀랐다. 현관문 옆에 전에 없던 'X자'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며칠 전 현관문 옆에 '△'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본 뒤 지인들로부터 '도둑 표시'라는 얘기를 듣고 '☆' 형태로 바꿔놨었다. 그런데 누군가 이날 이 표시(☆)를 페인트로 덧칠한 뒤 'X'자로 다시 바꿔놓은 것이다.

김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아파트 위·아래층을 오르내리며 다른 집 현관문을 살핀 결과, '△'와 '☆' 등이 표시된 집도 있었다. 표시가 아예

광주 북구 운암동·서구 풍암동 일대 '△' '☆' 'X자' '- '= 등 표시 놓고 도둑·검침원·선교사 행위 추측 난무

없는 집도 있었다.

결국 김씨는 이날 인터넷 광주·전남 주부 모임 카페에 "무서워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 도둑 표시가 맞느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광주·전남지역 주부들 사이에서 아파트 현관문 옆에 표시된 이른바 '도둑 표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 주부 모임 카페에 따르면 서구 풍암동·북구 운암동·광산구 신가동 등 아파트 현관문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X',

'+', '-', '=', 'O', '△' 등 다양한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이다.

주부들은 도둑이 대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가스 검침원·유유 및 신문배달원·선교사 등의 표시라는 추측을 내놓지만 흔자 있는 여성을 노리는 도둑이나 강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공포에 떨고 있다.

이들 표시 중 'O'는 남자, '△'는 여자를 의미하고 'X'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와 '='는 집에 사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 표시를 놓고 주부들 사이에서 갑

론을 벌이 벌어지고 있다. 상당수 여성들은 "표시된 것을 보고 지웠는데, 며칠 새 또다시 표시가 돼 있었다", "순천에선 이 일로 난리난 적이 있는데, 누군가 아파트에 침입한 뒤 표시해놓고 달아 났다"며 도둑 표시가 맞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도둑이 흔적을 남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피담일 뿐"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이 카페엔 경찰에 신고해보라는 글도 올라와 있다. 이날 현재까지는 각 경찰서에서 '도둑 표시'와 관련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아파트에 표시가 돼 있는지를 확인, 강·절도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변호사의 '직급하락'

자치단체 연봉 4000만원 '6급' 이어

경찰청 특채서도 '경감'으로 뽑아

경찰에 특별 채용되는 변호사의 직급이 경감으로 낮아졌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변호사가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되던 관행은 사라진 지 오래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인 가치 하락 뿐 아니라 '6급 변호사'가 대세인 시대를 지켜야 하는 착잡한 분위기도 일었다.

경찰청은 4일 경력직 변호사를 경감(일선 경찰서 팀장급·행정부 6급 대우)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내고 오는 21일까지 응시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은 20명이며 2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경찰이 지금까지 사법고시 합격자를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으로 뽑아 왔던 '5급 공무원 공개경채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로 임용하는 '전형 대신,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전형'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더 나아가 향후 경정 특채 전형은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변호사를 5급 상당 경정으로 채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자치단체의 경우 '6급 변호사'가

일반화한 지 오래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나주·함평의 경우 각각 6급 상당의 2년 계약 변호사를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직위로 채용, 운영하고 있다. 6급 변호사의 임용 첫해 연봉은 수당·상여·성과급을 합쳐 4000만원 가량이 다.

변화된 실상을 접하는 법조계 시각은 착잡하다.

당장, 광주지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3년 전 241명이던 변호사 수가 268명으로 늘어나면서 업계가 사건 선임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 10여 년간 광주지역 변호사 업계 선임료의 심리적 기준선 이었던 330만원이 깨지는가 하면, 200만원대 선임료를 받고도 일하겠단다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등 '우물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의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이 전해진 지난해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처우 강등과 그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등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한 성명을 낸바 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싱싱한 강진 파프리카

5일 강진 남포리의 농업회사법인인 '탐진들'의 유리온실에서 작업자들이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다. 약 10만㎡의 부지의 온실에서 키워진 파프리카는 연간 300t씩 대부분 유명 프랜차이즈 제빵업체에 납품 돼 샌드위치 및 도넛 등의 재료로 쓰인다.

전남의 한 축협조합장이 전에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 여직원 A씨가 지난 2012년 11월 전북 부안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전남 지역 모 축협조합장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조합장이 성폭행"

전 축협 여직원 고소

A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던 중 전남 모 축협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고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B조합장이 지난해 1월 축협 직관장에 취직을 시켜준 뒤 직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조합장은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식 납품업자 돈 받은

국회의원 전 비서관 구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이 학교 급식 납품 등과 관련해 업자로 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중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전 비서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광주 남구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등을 배송할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업자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해당 의원실은 검찰 수사 이후 A씨를 면직처리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6분 해질 18시 32분 달출 09시 51분 달몰 23시 51분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Seoul, Busan, etc.) and a 7-day weather outlook.

태풍 사후분석 통해 예보 정확도 높인다

기상청, 올해 '태풍 베스트 트랙' 시범 산출

기상청이 태풍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태풍을 사후 재분석하는 '태풍 베스트 트랙'을 산출한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5일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태풍의 중심 위치와 최대풍속 등 자료를 다시 분석해 정리하는 데이터인 태풍 베스트 트랙을 올해 시범 산출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풍 베스트 트랙은 실황 분석의 오차를 인정하고 실황 분석 이후 수집된 자료들로 태풍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다. 베스트 트랙은 태풍을 분석할 때 쓰이는 기초 자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자료가 없어 미국 등 외국의 태풍기관이 발표한 베스트 트랙을 활용해 태풍을 분석해 왔다. 미국은 1945년부터, 일본은 1951년부터 매년 태풍 베스트 트랙을 생산해 이듬해 발표해 왔다. 올해 초 태풍센터는 작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24호 태풍 '다나스' 등 태풍의 베스트 트랙을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매해 3월 태풍 베스트 트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베스트 트랙은 국가방재 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와 함께 태풍센터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이 4.2hPa 감소하고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2m/s 증가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고 최대풍속이 빠를수록 위력이 세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BS1 TV 'Arima-dang'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marriage information and a job search service.

Advertisement for a traditional Korean clothing (hanbok) sale event, featuring a woman in hanbok and text about special discounts.